

# 소녀들이 하루 16,000칼로리 섭취하는 이유

9~11세 여성의 하루 평균 권장 섭취량은 1,700칼로리지만, 이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음식을 먹는 소녀들이 있다.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 딸의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을 강제로라도 먹이는 것이다.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10대 소녀들은 일명 '먹는 기간' (Feeding Season)이라 불리는 기간이 오면, 약 2개월 동안 하루에 1만 칼로리 전후의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많게는 1만 6,000칼로리의 음식을 먹기도 한다.



▲ 매력적인 몸매를 가지기 위해 하루 1만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는 아프리카 10대 소녀들

모네라는 이름의 11세 소녀는 나이에 맞는 체중과 BMI(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네는 "나는 내가 똥똥해야 예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른 몸은 원치 않는다." 고 말했다.

소녀들은 부모들에 의해 강제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2,000~3,000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며, 여기에는 쿠스쿠스(으깬 밀로 만든 아프리카 음식)와 포리지(귀리에 우유나 물을 부어 걸쭉하게 죽처럼 끓인 음식) 및 달달하게 만든 수리터의 낙타유 등이 포함돼 있다.

모네의 엄마는 딸의 '먹는 기간' 이 오자 2개월 동안 오로지 먹고 쉬면서 몸집을 불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모네와 또래의 친구는 이 텐트에서 아침에 3,000칼로리, 점심에 4,000칼로리, 저녁에 2,000칼로리 등 하루 9,000칼로리를 섭취한다.

부모들이 10대 딸에게 강제로 많은 음식을 먹이는 이유는 '훌륭한 신부감' 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아프리카에서는 몸매가 마른 여성 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큰 풍만한

식량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부종이나 비만 등의 부작용이 있는 스테로이드 및 알레르기 염증 치료제인 텍사메사손 같은 약품을 구입해 소녀들에게 먹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들 학교에 '성인용 인형' 보낸 엄마

5세 아들 위해 성인용 인형 구입한 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영국 '메트로' 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헬렌 콕스(46)는 얼마 전 5살 아들 알피가 학교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기념 연극에서 사용할 소품을 구입했다. 그녀는 아마존에서 21.65달러에 양 모양의 인형(풍선)을 구입했고, 집에서 이를 한껏 부풀려 모양을 만든 아들 손에 들려 학교로 보냈다.

낸 것 같다." 며 당혹스러워했다.

하지만 당일 콕스의 아들은 소품으로 보낸 양 인형을 다시 집으로 들고 돌아왔다. 인형을 자세히 살핀 콕스는 그제야 황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해당 양 인형은 붉은 입술과 속눈썹이 그려져 있는 성인용 인형이었다. 황당함에 콕스는 다시 한 번 아마존의 판매 사이트를 훑어봤지만, 어디에도 '성인용' 이라는 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들 알피에게 해당 인형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가 이미 인형에 마음을 빼앗긴 후였다. 알피는 양 인형을 가지고 놀지 말라는 엄마의 말에 끊임없이 이유를 물을 뿐, 인형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콕스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선생님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선생님도 이것이 성인용 인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

콕스는 "아들에게 문제의 양 인형이 성인용 인형이라는 설명을 차마 하지 못했다.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했다." 면서 "그냥 몰래 버린 뒤 '요정이 가져갔다' 고 해명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 가벼운 '입맞춤' 때문에 세상 떠난 아기



▲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생후 14일 만에 세상을 떠난 키아라

생후 14일된 아기의 사망 원인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영국에 사는 켈리 이네슨(30)과 배우자인 토마스 커민스(26)는 얼마 전, 낳은 지 고작 14일밖에 되지 않은 딸 키아라를 잃었다.

키아라는 세상에 나온 지 10일 쯤 되던 날, 이상증세를 보여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의료진은 이 아기가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로 불리는 단순포진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위기를 넘겨도 극심한 뇌손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키아라는 이로부터 4일 후인 생후 14일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키아라의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가벼운 입맞춤으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을 설명을 들은 뒤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갓난아기에게서 발견되는 헤르페스바이러스는 대체로 성인의 입술 또는 입 안에서부터 전염되며, 아기가 예쁘다는 이유로 가볍게 입을 맞추는 행동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면역체계가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에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키아라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키아라의 부모는 "주위 사람들이 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입을 맞췄고, 그 이후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다." 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 함부로 입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우리 사연을 알리고 있다." 고 밝혔다.

영국의 헤르페스바이러스재단의 책임자인 마리안 니콜슨은 "당신은 어쩌면 입 안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보유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기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 며 아기들에게 행하는 무분별한 입맞춤에 대해 경고했다.

www.myevery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